

8/26(누) 7:30

나날데리미드다.

2015.08.11. 총여학생회 포럼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기획단
매체팀 2차 회의 안전지

성미산마을극장 (주주)

여름캠프 참여!
90년대 영데리미드 ~!!

혜원, 숙명, 허규, 찬재, 영리, 민정, 해인, 소영.

기면증... (8사8)

교향
그라사루.

다시

심리학을제니
구체적으로 몰임.

시작프롬자문집

연세지.

(=)

1. 생활나눔

2. 일정체크

일정	내용
8/4 (화)	기획안
8/11 (화)	초안
8/18 (화)	2안
8/25 (화)	완고 → 디자인 맡기기
9/1 (화)	교정 및 디자인 피드백
9/4 (금)	마지막 교정, 인쇄 넘기기
9/8 (화)	배포 시작

정성
다시보자.

정성
다시보자.

정성
다시보자.

3. 매체 구성과 기획

- (1) 주제, 컨셉, 방향성
- (2) 디자인과 인쇄
- (3) 배포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텔마타 루이스>
뚜렷하게 있었어...
커비드리 <행심> 기획 설정.

참고해보니까...
학생어른은 아니냐

4. 기획안/초안 피드백

[기획안] "이것은 왜 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소재	성폭력
기획의도	성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상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비난받을 만한 폭력이라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제 3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제 3자들이 감정적,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이 성폭력 사건은 '온전하' 처리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듯 마치 일상의 한 부분처럼 가려진 성폭력을 우리가 얼마나 간과하는지, 혹은 묻어두는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비판점들을 성찰하고자 합니다.
글의 종류	분석, 설명, 성찰
글의 느낌 /분위기	특정 경험을 바탕으로 생겼던 문제의식을 심화, 확장 시키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글입니다.
주제	"이것은 왜 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성폭력을 성폭력이라고 주장하지 못 하고 더 나아가 인식조차 못하는 현실 지적

드러낸다.
다시 본다.

해박심카워드.
중요도 차이?

인중하 글.

다시봄

개변은
타고방기.

기억담원.

포럼과

접할수 있는

지점.

조금 한바다 모인.

다시봄

들어가며...

'이것이 왜 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퀴어퍼레이드 후기.

시기가 애매하게 ~ ~ ~ ~ ~

성폭력도 폭력이다
숙영
꺼내려지니.

최근 혹은 이전에 이슈가 되었던 몇몇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동안은 막연하게, 나와 내 주변과는 먼 얘기처럼 느껴졌던 성폭력 이슈가 갑작스레 뇌리에 박히게 된 것은 이 사건들을 접하며 다시 한 번 성폭력이라는 것이 지극히 일상 안에 은폐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일상이라는 것이 어떤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특별한 개인의 일상이 아닌 바로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이야기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들이 내게 어떤 자극을 준 것은 사건이 특별히 강간 납치 같은 잔혹한 것들이기 때문이 아니다. 고등학교 때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를 읽고 너무나 잔혹하게 묘사된 성폭력에 분노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나의 분노의 방향은 잔혹한 폭행을 저지른, 사건을 은폐하는 이들로 명확하게 설정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와는 다르게 단순히 가해자를 죽일 뿐이라고 비난하고, 피해자를 동정하는 것으로 끝내기엔 이 사건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책임감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았고, 분노의 화살표가 일직선이 아닌 서로 다른 책임의 무게로 각각 다양한 이들에게 향하고 있었다.

()

<공동체으로...>

제노기.

포럼하게 함보존.

때문에 성폭력이라는 것이 결코 개인의 윤리적 결함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임을 주장하기 위해 특정 시공간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공간들은 내가 속해있거나, 나쁜 신뢰를 가졌던 곳으로, 성폭력과는 전혀 거리가 있어보였던(혹은 거리가 있어야만 했던) 공간이다.

() (네) **naive.** **smugler** **peaceful** **peaceful** **젠더폭력** **여름**

얼마 전 '데이트 폭력'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었다. '데이트 폭력'은 이전부터 사용된 용어였는데, 이제 와서 크게 이슈가 된 것은 한 진보논객과 연인관계였던 이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 때문이었다.

(사례)
이후에도 언급하겠지만 이 사건은 나에게 성폭력에 대한 총체적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킨 결정적 사건이었다. 생각해보면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연인관계와 가정이 어찌면 (성)폭력과 가장 가까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인관계 또는 가족관계에서 (성)폭력이 성립한다고 쉽게 사유하지 못한다. 심지어 피해자가 이런 방면에서 나름의 공부와, 의식을 가졌던 인물이었음에도, 명확하게 폭력을 폭력이라 규정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 사례의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가해자가 "때린다는 것을 제외 하고는 괜찮은" 연인이었고, "맞지 않는 것보다 그를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그녀는 본인이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처했다고 표현한다.

()
()

사회 정의를 말한다며 어떻게...?

'진보 논객의 데이트 폭력' 사건은 친밀하다고 여겨지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소위 진보를 자처하며 사회 정의를 고민하는 이들의 모순점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데에서도 방점이 찍힌다. 이와 관련하여 진보 진영의 '마초군상'은 세심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아닌 이전부터 계속 제기된 문제점이다.

인정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 위원회) 사례)
(유시민 '해일이 이는데 조개나 줌고 있다' 발언 사례)
(한윤형, 박가분 사례)

열심히 고안 (피해자 서사 구성)

이러한 지점에서 과연 그들이 맞았던 억압과 폭력이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내부의 성폭력 사건도 해결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나 국가의 폭력에도 저항할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아, 이런 사람들도 당연하게 저지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만큼 성폭력이라는 것이 터부시 되어왔다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영역은 나름 교회라는 공간에 중요한 의미를 두는 사람으로서, 가장 문제의식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교회의 위상이 바닥을 치는 마당에 여기서 더 무슨 드러낼 치부가 있겠냐마는, 종교 또한 성폭력 이슈에 있어 피해할 수 없으나, 은폐되기 십상인 공간 중 하나라는 사실 만큼은 분명하다.

(전병욱 목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3201.html
(<성폭력과 힘의 악용>)

나가며...

집단 내부 권력관계 발생/원인

위의 세 사례들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폭력'이라는 것이 가장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혹은 알아야 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성)폭력 그 자체와, 실제적으로 폭력으로 규정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과,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포함하는 관계의 역학들에 의해 사건이 은폐되는 실상이다. 내가 몸을 담고 있던 공간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추가할 내용 : 권력 관계, 정치적 책임, 관계의 역학

트드방방방방방

데이트폭력 **문화과학에** **박가분 글이** **설리**

가려진 몸 드러내기

1. **가려짐을 추동 받는 몸**

본문이 헛갈림

한혁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는 한다. 한 눈에 봐도 예쁜 여성, 잘 생긴 남성이 지나가면 다들 뒤돌아보기 일쑤다. 동기, 후배들과 과방에 앉아서 이야기 할 때도 걱정이 라는 이름의 몸 평가는 이어진다. "요즘은 운동 안 하니? 살이 좀 쪼 났 것 같은데.", "오늘은 화장을 안 했네? 안 좋은 일이라도 있니?", "웃을 그렇게 입는데 연애라도 할 수 있겠냐?" 이러한 몸에 대한 평가들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미디어를 통해서도 연예인들의 신체를 두고 평가하기 시작한다. 이 연예인을 얼굴이 어둡고, 저 연예인을 몸매가 어둡고 따위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또한 이러한 평가 속에서 이상적인 상으로 추앙받은 여성 연예인, 남성 연예인의 모습은 그 자체로 다가서야 하는 몸으로 인식되며,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몸,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몸을 이 이상적인 몸으로 몰아가게 만든다.

가장 아름다운 상을 정해두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다가서도록 추동 받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가꾸기 시작한다. 더 나은 외모를 위해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고, 피부 관리를 받는다. 이 방법들로 한계가 있다면 각종 성형수술을 받기까지 한다. 아름다운 몸을 열망하는 몸 가꾸기 열풍이 불면서 미디어는 한 발 더 나아가 몸매 좋은 여성과 남성이 등장하여 운동법을 소개하고, 외모로 스트레스 받는 인물이 성형수술을 받아 스트레스를 벗어난다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사람들은 몸 가꾸기의 궁정적인 모습만을 선별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선망과 함께 연젠가 자신도 저렇게 되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몸을 가꾸는데 보다 몰두하게 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미디어를 소비하면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몸 그 자체이다.

"모든 사람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라는 말로서 대변되듯이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몸을 가꾸는 일은 해야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것이 스스로의 몸을 소중히 대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몸 가꾸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미지를 씌우는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몸 가꾸기를 하면 할수록 더 아름다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성공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서 몸 가꾸기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종의 의무로서 인식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으로 재단되어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몸은 가려짐을 추동 받는 수밖에 없다.

진화심리학적 설명

정체화된 몸의 주입 :D

의제설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291956345&code=990000&s_code=ao105

2. 선택받는 몸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가꾸고, 다른 사람에게 몸을 가꾸라고 말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선택' 할 수 있다는 관념이 생긴 것과 관련이 깊다. 19세기가 시작하면서 등장한 '자유주의'는 이전까지 정해진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을 가져왔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강조되면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당시까지 이러한 선택의 주체로 받아들여진 것은 자본가 계급의 비장애인 백인 남성이었다. 보다 이전의 시대와 유사하게 대다수에게는 선택할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 선택당하는 위치에만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노동자 계층의 남성들,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앞서의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념을 남겼고, 이후 이들이 진행한 여러 권리투쟁들은 선택의 주체로 인정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유와 선택이라는 관념이 생기면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는 당연한 것이 되어왔다. 이러한 관념적 토대 위에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이다. 1970년대 다시 등장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현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양식을 통해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자본이 국경을 넘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이전보다 선택의 개념을 극대화한다. 또한 자본이 특정 사람들에게 편재되어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경우는 선택받는 상황에 더 많이 직면하게 되며, 선택받음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상의 논의는 경제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몸을 가꾸기가 열풍이 된 것은 이러한 개입의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게 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나은 몸을 꿈꾸게 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선택받는다는 생각을 내재화하게 되었고, 더 많은 선택을 받음으로써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한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몸 가꾸기는 자신의 몸이 더 많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며, 결과적으로 이는 선택하기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3. 가져지는 몸

4. 몸 드러내기

5. 정체되는 논의, 여전히 몸들은 가려지고 있다.

참고할 자료

'가슴 실종녀' '모태 거구녀'... '메이크오버'를 어떡하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2551&CMPT_CD=SEARCH

[정희진의 낯선 사이] 외모주의와 사회적 개입

인간

gender

배타적

나이·인종

문신·염색



무뎌

make over

화장을 하는 feminist

실용성
심미성
자아표현
화장
가꾸기
다양한
모드
의미

전체적
작가
시점

transgender

20대 남자 취준생이 제일 많이 하는 성형수술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3218&CMPT_CD=SEARCH

[인권오름] [언니네 방앗간] 외모노정,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jinbo_media_01&nid=71337

<친밀한 적> '나 주식회사'와 외모관리, 김고연주

<젠더와 사회> 남성성의 위기와 한국의 남성문화, 엄기호

<동동해서 죄송합니다> 실천1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시선 찾기

[기획안] 글 제목-미정

소재	성을 다룬 과학적 논문	성조이데올로기
기획의도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	2차어지우기 방지
글의 종류	논문 리뷰 느낌	성조이데올로기 =
글의 느낌 / 분위기	무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Casual sex
주제	여자, 남자의 casual sex	casual sex
자료조사	취재 : 논문 분석! 칼럼 :	대안성애 성취제안
구성		
인트로	실험 4인칭서점으로 소개 - 흥미 유도 실험 내용; 대학 캠퍼스에서 이성이 섹스 제안을 했을 때의 남녀 간 반응을 보는 실험.	1989 고전적 실험
본문1	실험에 대한 결과, 해석 간단하게 소개 / risk vs love 결과; sex 제안에 70%의 남자 ok. 0%의 여자 ok. 해석;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sex를 한다? (casual sex는 여성에게 더 위험한 것이다?)	일회성 one night
본문2	위 실험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 -> 여성의 성생활에 대한 고정관념들. 여성은 남성보다 생물학적으로 더 성욕이 없다?? 여성들은 낭만적이고 장기적인 관계에서만 섹스를 한다??	

casual sex

사회과학 / 인문학.

근거

세상적인 환경...
과학의 다른 몇 명제.

casual sex.

본문3	기존 논문을 뒤집는 최신 논문 소개. 남자의 성적 매력도에 따라서 ok 확률이 더 높아진다 / 등등 여성들의 ok 확률이 높아지는 다른 경우들
결론	여자들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섹스를 할 수 있다. casual sex를 하는 데 있어서 감내해야 할 risk가 남자보다 많기 때문에 수락하는 정도가 적은 것이며, 다른 조건들(남자의 높은 성적매력도, 사회적 낙인이 적을 경우)이 위험요소를 감수할 정도가 될 때 casual sex 수락의 성차가 사라진다.
기타사항	문화 차이 성욕 차이가 사회문화적 요소에 영향 덜 원한다.

제목 미정

찬재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싶어 하는(혹은 가지고 싶어 한다고 여겨지는) 보물 3가지는 부, 명예, 권력이다. 많은 우화와 이야기, 그리고 현재 많은 이들이 즐기는 여러 미디어와 매체에서 3가지의 보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려진다. 그 중에서도 권력은 특이하게도 질투와 비난을 모두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난 권력을 가지고 싶어. 권력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흔히 나쁜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여겨지기 십상이고, 이상한 정도로 여겨지면 다행일 정도이다. 여러분들은 권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는지 궁금하다.

'언니, 저는 원래 주관이 좀 없는 성격이었어요... (중략) 대학에 입학에서도 여전히 저는 언제나 친구들과 선배들에게 끌려다니기만 하네요. 저도 조금은 당당해지고 싶어요.' (대학생 박소심)

나는 누구, 여긴 어디인가? 나는 왜 여기서 직장 선배들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며 저 치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어야 하는거지...? (직장인 이한탄)

요즘 경제적 독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곤 해.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을 받으며 생활을 꾸려왔는데, 부모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도 내가 먼저 불편하더라고. (취업 준비생 김고시)

우리는 권력을 떠올리면 보통 검은 정장을 입고 국회나 정부 청사 어딘가에 앉아 서로에게 고성을 지르며,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나이 지긋한 이들을 떠올리곤 한다. '권력=정치인' 과 같은 등식은 아주 일반적이다. 하지만 위의 여러 사연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술 혹은 친구들을 옆에 두고 늘어놓는 푸념들은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리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곤 한다. 필자는 최소한 필자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의 모든 힘들고 아팠던 기억들에는 권력의 농간이 있었음을 당당히 선언하는 바이다.

일상. 모든 사람의 삶은 크고 작은, 가볍고 무거운 일들을 저지르고, 당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일상을 한 조각, 두 조각 모여 이루어진다. 그 일상은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

한국인들의 삶은 짝퍽하다. 구구절절 지리하게 그 이유를 설명치 않더라도 이 글을 읽는 많은 이들은 직접 그 짝퍽함을 몸소 경험하고 있으리라. 그러다보니 우리는 틈이 날 때마다 짝퍽하고 힘든 인생에 상쾌한 단비를 내려줄 '오아시스'를 찾아 킬리만자로 산을 오르게 된다. 우리는 머리와 마음을 오르내리며 오아시스에서 마시게 될(또는 이미 마시고 있는) 청량한 물에 순수와 진정성의 옷을 입힌다. 그 오아시스 중 아마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으리라 여겨지는 오아시스의 이름은 '연애'라 할 수 있겠다. 이 짝퍽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순수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이 꽃피울 연애는 그렇게 흡사 이상향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현신(?)한다.

대부분의 모임, 집단이 이야기의 포문을 열거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등 여러 이유로 가장 즐겨 꺼내는 토픽 또한 '연애'다. '야 오랜만이다. 요새 머 누구 만나는 사람은 있나? 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연애를 안 해? 혼자 늙어죽을래?!' 라는 말을 농담 삼아 꺼내는 장면은 요즘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니다. 미디어나 여러 대중 매체 등도 역시나 그러한 부추김과 편찬에 빠지지 않고 한 몫 거들곤 한다. 한국 드라마, 영화의 고유한 특징으로까지 거론되는 '로맨스'는 이제 없으면 이상할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의 스테레오 타입이 되기까지 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이렇듯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연애, 사랑'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앞서 언급했던 순수함과 진정성의 오아시스에 대한 환상을 더욱더 부추긴다. 연애와 사랑은 많은 (위치)에서 하얗게 빛나는 순수함을 입는다. 귀신과의 사랑, 병에 걸린 환자와의 지고지순한 사랑, 사형수와의 사랑 등 많은 사랑은 지고지순함의 판타지로 그려지고, 여러 명과의 사랑, 노인들의 사랑, 다른 인종끼리의 사랑은 오아시스의 물을 흐리는 약(藥)으로 그려진다. 그렇다면 그 순수함의 오아시스는 앞서 가장 먼저 함께 살펴보았던 권력 따위는 개나 쥐버릴 수 있는 공간인가? 사랑이야 말로 평등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이상향인가?

전혀. 그럴 리가.(1)

그 오아시스에서 솟아나는 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이들은, 순수함, 낭만의 옷을 입은 사랑과 연애가 오히려 권력을 아주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안다. 권력은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오아시스에 독을 풀어놓는다. 한국사회에서의 연애는 일반적으로 두 개인 사이의 관계를 전제한다. 그리고 그 두 개인은 각자가 존재하는 위치와 상황에 따라 여러 요소, 소위 스펙이라는 것을 가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연애 관계가 아니라 기존의 한국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도 일종의 자본으로 기능한다.

외모, 경제적, 패션, 학벌, 집안, 직업, 지역, 인종...

이 외에도 연애라는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자본)들은 매우 다양하고 이 모든 것들은 권력 관계로 두 개인과 주변에 작동한다. 우리가 흔히 듣는 'A가 B보다 아깝네' 따위의 말들은 그러한 권력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발화 중 한 가지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권력관계'들은 연애를 진행하는 두 개인 사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돈이 많은 여성의 말을 무조

건적으로 따르며 흡사 하인인 마냥 받는 모습을 보이는 커플을 칭하는 ‘머슴과 마님 커플’, 외모와 경제력 등의 자본을 이용해 원하는 것만을 취하는 남성을 칭하는 ‘나쁜 남자’ 등과 우리가 흔히 연애와 한 묶음으로 생각하는 밀당 등이 그러

하지만 그 오아시스가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한가를 가늠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그렇게나 다양한 요소들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학습하고 행위 해온 고정적인 성역할이 연애 관계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성역할 : 의미1)

성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



그림 1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갈무리

위 갈무리된 장면은 최근 한창 인기몰이 중인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의 한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여자 주인공은 몸 안에 들어간 처녀귀신 때문에 남자 주인공에게 한번만 자신과 관계를 맺자고 부탁한다. 관계를 원하는 여자 주인공과 그 부탁(?)을 받고 거부하는 남자 주인공이라는 구도는 일단 한국 사회에서 흔히 사유되는 방식의 성역할 담론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보통 기존의 담론에 따르면 성적인 접촉, 관계에 대한 욕망은 남성의 것으로 위치지어진다.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남성과 그 욕망에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로서의 여성이라는 구도가 익숙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담론이라는 것은 한 개인 혹은 집단이 행위하고 사유하는 데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은 이러한 욕망과 관계에 대한 성역할 담론은 남성을 욕망의 주체이자 권력자로 여성을 욕망의 객체이자 권력에 짓눌린 자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성애적 연애 관계 내에서(때로는 다양한 성애적 연애 관계에서까지도) 한 개인의 성별(gender)은 그 개인의 행위와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여자는 조신하게, 남자는 씩씩하게

1) 성역할 개념 참고 문헌

- 9 -

현아
꾸쳐성
바가요

매락 **두루마니** 😊

남자는 외조를, 여자는 내조를
여자가 입어야 할 옷과 몸가짐은~, 남자가 입어야 할 옷과 몸가짐은~
초콜렛 복근의 남자, 꿀벅지의 여자

무슨 상관이 있는게지—기! 유계영.

위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들 이외에도 현대 한국 사회에서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성역할 담론이 연애편계에서 작동하는 범위와 수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다. 이 모든 성역할 담론은 서로 중첩되고 왜곡되면서 담론을 거스르는 이와 담론을 획득한 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종전에는 연애 관계를 권력의 장으로 비틀어 놓는다.

intro.

결론
오아시스의 환상에서 깨어나길
고정적인 성역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과연 어떻게? 인식의 중요성

사례. 설득적.
음는척. 듣는척.

욕망

하교났었다 박보영 😊

중들에게 물면함
서른 뽀
귀엽게 리드!! 리드.

연애+권력 intro 너무 길다

없나까오지리 CNI 반 A 영려영리 영리 영리.

하교 유해 — 생목
생목 / 생취 여부!!
생취시켜주는 느낌.

장근 시

성역할 규범
그걸리가 ~.

이런이런 것들에
‘낭만적 사랑’ 《물라파라》 영향을 받고있다.
연혜 그걸리가!
순서가 어긋남.